

박사학위 논문

한국 근대 서북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

정 주 아

2011년 2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남현 선생님

본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의 성립에 기여한 주요 문인들이 한반도 서북 지역에서 출생하고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대 서북 지역의 로컬리티와 서북문인들의 문학사상과의 연관성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때 ‘로컬리티(locality)’란 한국근대문학의 발생지로서 한반도 서북지역, 특히 평안도(平安道)의 문화적 특수성을 문학연구에 도입하고, 한반도 내부의 정치사회적 헤게모니 경쟁과 국제 관계 속에서 민족문학을 구상해야 했던 서북문인의 위상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선택된 개념이다.

한반도의 변방인 서북 지역은 조선 시대 이래 문화적 이질성, 국경 지대의 반심(叛心)에 대한 의혹 등으로 정치사회적 차별을 받은 땅이다. 지역적 차별은 중앙 통치 세력을 불신하는 지역사회의 독자적 발전 양상으로 나타났고, 이에 ‘서북인(西北人)’이란 기존 제도권 내에서는 입신양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소외된 지식인 그룹의 전형으로 간주되었다. 서북인은 통치 수단으로 동원되는 단일국가론의 허상과 기득권 계층을 재생산하는 사회제도 등에 대한 환멸을 키운, 내부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서북인은 근대적 전환을 구시대와 구분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기회라 보았

고, 서북문인과 그들의 작품은 이와 같은 서북 지역 및 서북인의 역사 속의 일부이다. 근대 서북인의 일 세대는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등 1907년 신민회(新民會) 운동의 주역들이며, 이광수, 주요한, 전영택, 김동인 등 한국근대문학 초창기의 주요 서북문인들은 이들 신민회 세대의 영향력 하에서 문학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서북 지역의 문화지성사의 주요 축이 도산 안창호를 중심점으로 한 흥사단(興士團) 운동과 평양 중심의 기독교 청년운동에 있다고 보고, 이들 집단의 문화운동이 서북문인의 문학 창작 및 문학적 행보에 연결되는 양상을 살폈다.

제II장은 근대 서북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서북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서북문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 표상들을 통해 서북문단을 형성시킨 토양을 살폈다. 본 논문에서는 일련의 서북문인들이, 민족 공동체의 내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정치사회적인 소외에 대한 서북인의 해원(解冤)의 욕구를 계승하되, 그와 같은 해원의 방식이 비단 신분 상승을 향한 보상적인 욕구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를 재생산하지 않는 공동체 윤리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기존의 '나라'에 대한 애착이 없었던 만큼, 서북 지역의 민족주의 문화운동은 빼앗긴 국가의 '탈환'이 아닌 '망국(亡國)'을 보상할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지향하게 된다. 서북인의 공동체 이상주의는 무장투쟁론이 아닌 실력양성론을 토대로 성립되고, 구성원들에게 '산화(散華)하는 청춘'이 아닌 '인고(忍苦)하는 청춘'의 형상을 요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서북 지역의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던 기독교는 서북인의 공동체 이상주의를 지탱하는 정신적 기반이 되어, '신념'과 '신앙'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낸다. 평양(平壤)의 대동강과 대성학교(大成學校), 정주(定州)의 오산학교(五山學校) 등은 근대 전환기를 통과하는 서북인의 유토피아니즘을 내포한 장소들이다.

제III장은 춘원 이광수와 <창조>파의 문학론을 중심으로, 서북인 일 세대의 신념을 계승한 '서북청년'으로서의 자아상이 발현되는 양상

을 살폈다. 집단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한다든가, 세대적으로 계승한다는 상황은 집단주의로의 함몰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들 서북문인들이 한 국근대문학사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앞서 개성의 문제를 명민하게 자각하고, 집단 속에서의 개인의 존재 방식을 질문하며 문학예술과 만나게 된 인물들이라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서북문인의 문학론이 개인과 집단을 양립시키고 어느 한 편의 취사선택을 고민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경계를 가능한 한 무화(無化)시켜 개인과 집단의 공존 방안을 찾아내려는 여정이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무실역행(務實力行)으로 요약되는 도산 안창호의 흥사단 이념과 기독교적 사랑의 원리는 인식론상의 근거가 되는데, 전자는 '무실(참)'을 자기규제적 행동원리로 삼는 구성원들의 연대에 의해 유지되는 윤리적 공동체에 관한 구상이며, 후자는 소명을 자각한 메시아들의 확산이 곧 공동체의 구원으로 연결되리라는 보편적 선의지의 바람인 것이다. 춘원 이광수가 도산 안창호를 통해 내면화한 순교자의 형상, 종교와 문학이 '사랑'이라는 이데아를 공유한다는 전영택의 사회 참여적 기독교 문학론, 문학의 언어와 정치의 언어를 장악한 언어의 주재자로서의 주요한의 자부심 등은 종교적 개인의 존재방식이라 할 '보편적 개성'의 구현이라는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

제IV장은 1920년대 민족주의문화운동을 서북문인의 공동체 이상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관점에서 살폈다. 특히 이 시기의 민족주의 문학 운동이 흥사단 및 기독교 단체가 주도한 문화운동과 연관을 맺는다고 보고, 〈朝鮮文壇〉 및 〈東光〉을 중심 텍스트로 선택하였다. 그간 계급주의 문학론과의 대립구도에서부터 논의되곤 했던 〈조선문단〉의 이념적 정향을 한반도 및 만주 지역을 포괄하여 진행되었던 이상촌운동(理想村運動)이 시사하는 공동체적 구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하였다. 더불어 이들이 제시한 민요운동론이 '노래'와 '언어(말)'라는 문학원론적 차원의 논의에 가깝다고 보고, 오히려 타자와의 공감을 지향하는 보편적 매개의 확보라는 구상에서 나온 것임을 밝혔

다. 〈동광〉론에서는 평양(平壤), 상해(上海), 미주(美洲)로 연결되는 서북청년 문화운동의 지리적인 확장성을 서북발(發)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변화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일군의 서북청년들이 보여준 ‘탈-로컬’의 경향은 세계주의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동시에 서북 지역을 구시대와 변별되는 신시대의 기원이 열린 곳으로 기억하고, 서북 지역의 역사 속에서 문화운동의 동력과 자기 정체성을 환기하는 태도 역시 유지된다. 서북인의 현실 인식 자체가, 이미 권력의 억압과 교조화를 경계하는 변방인의 소외의식 속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북인이 보여주는 세계주의란 서구지향적 경사라기보다는 영토, 국경, 민족 등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보편지향성(cosmopolitanism)에 가깝고, 1920년대는 그와 같은 공동체 이상주의에 대한 낙관이 아직은 유효했던 시기이다. 요컨대, 서북인의 집단적 특수성이란 변방인의 보편지향성과 공동체 이상주의에의 열망으로 요약되며, 서북인의 문학사상사는 집단주의의 획일적 폐쇄성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소외 집단에서 재차 도출된 공동체 이상주의를 향한 희망과 환멸의 궤적을 따라 읽는 일이 된다.